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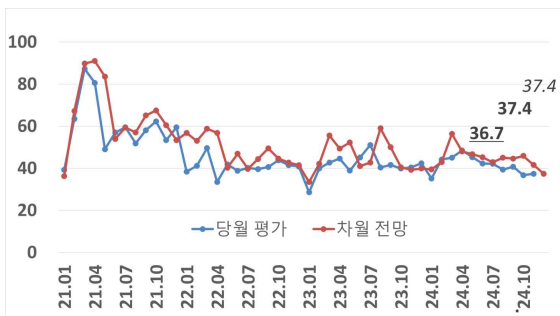
I. 2024년 11월 건설경기평가 및 12월 전망

■ 11월의 경기평가는 전월 수준, 차월도 동일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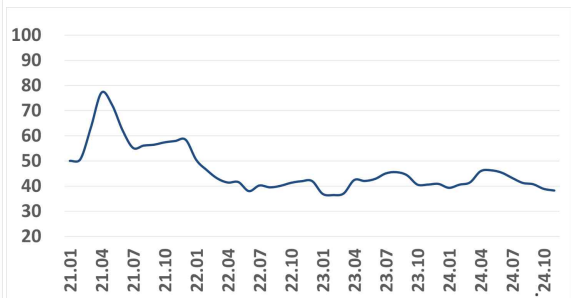
- 11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7.4로 전월(36.7)과 비슷했으며(+0.7p), 12월(37.4)에도 동일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0.0p).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발주물량 감소, 불충분한 물가지수 반영(공사비), 생산체계 개편으로 불법하도급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소규모 공사수주 곤란, 기능인력과 자재수급 난항, 수도권에 치우친 정부정책 등이 지적됨.
- 수도권이 39.5(40.8→39.5)로 전월과 비슷했으며(-1.3p), 지방도 36.7(35.0→36.7)로 전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1.7p).

〈표-1〉 2024년 11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12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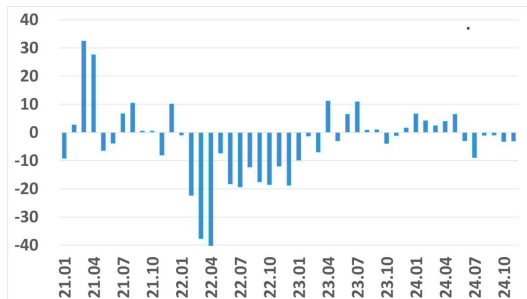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4년 11월 평가	37.4	40.4	39.5	36.7	37.0	40.7
2024년 12월 전망	37.4	39.9	48.8	33.3	44.4	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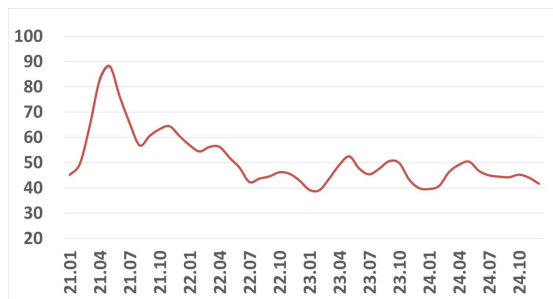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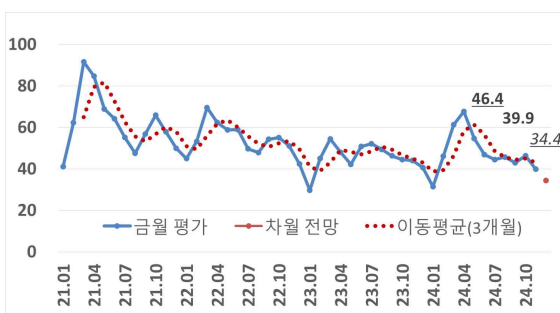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하락, 하도급은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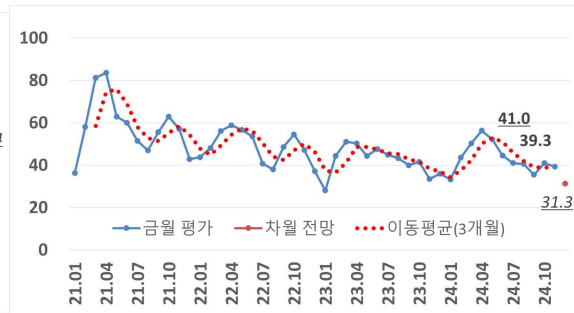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39.9(46.4→39.9)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6.5p), 하도급수주는 39.3(41.0→39.3)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음(-1.7). 공공공사의 발주감소(지역별 체감도 상이)를 비롯한 수주감소가 줄곧 제기되고 있으며, 업역체계 개편의 여파로 전문건설공사의 수주경쟁이 심화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9.2→53.5)에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5.7p), 지방(41.0→35.0)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함(-6.0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3.1→60.5)에서 전월에 이어 개선되면서 지방과 큰 차이를 보였음(+7.4p). 지방(35.9→31.7)도 수도권과 달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4.2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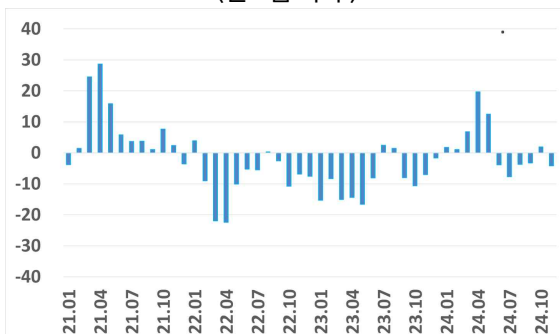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4년 11월 평가	39.9	44.1	53.5	35.0	66.7	33.3
	2024년 12월 전망	34.4	33.5	46.5	30.0	51.9	42.6
하도급 수주	2024년 11월 평가	39.3	38.8	60.5	31.7	70.4	33.3
	2024년 12월 전망	31.3	27.7	46.5	25.8	44.4	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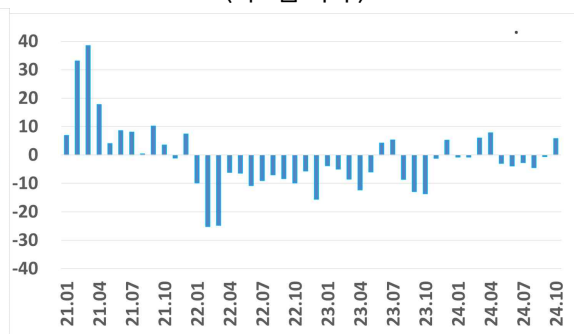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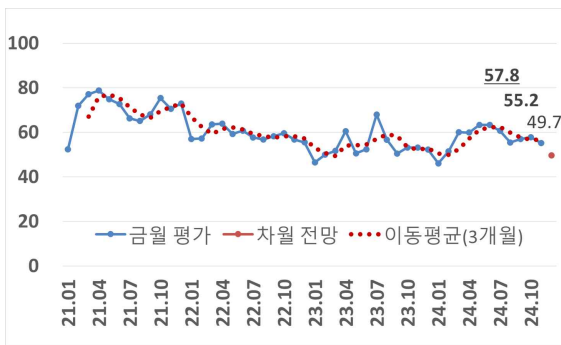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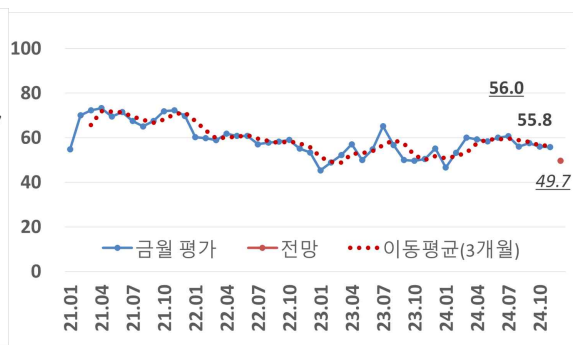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5.2(57.8→55.2)로 전월과 유사했으며(-2.6p), 차월(49.7)은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5.5p).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수금의 어려움을 토로한 업체들이 다수 나타남.
 - 수도권(63.3→62.8)은 전월 대비 상승(-0.5p), 지방(55.6→52.5)은 하락함(-3.1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5.8(56.0→55.8)로 전월과 유사했으며(-0.2p), 차월(49.7)에는 금월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6.1p).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보다는 공사수주 자체에 대한 응답업체들의 위기감이 더욱 크게 부각됨.
 - 수도권(63.3→69.8)은 전월에 이어 상승(+6.5p), 지방(57.9→50.8)은 하락함(-7.1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4년 11월 평가	55.2	53.2	62.8	52.5	81.5	53.7
	2024년 12월 전망	49.7	49.5	48.8	50.0	51.9	55.6
자금조달	2024년 11월 평가	55.8	50.5	69.8	50.8	85.2	59.3
	2024년 12월 전망	49.7	42.0	55.8	47.5	55.6	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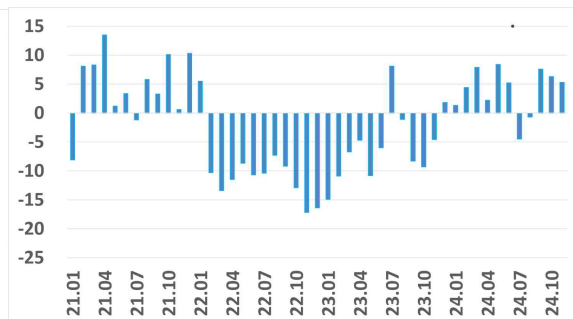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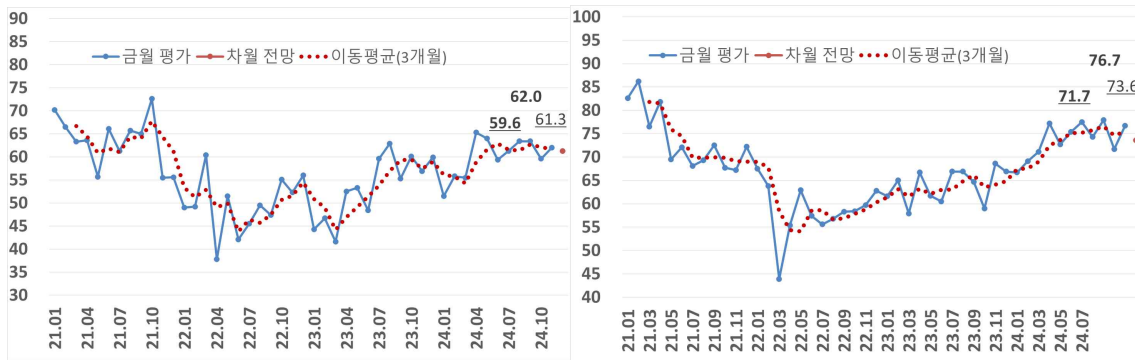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소폭 개선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62.0(59.6→62.0)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았음(+2.4p). 다만 전년 동월(56.9)보다는 높은 수준이 지속됨(+5.1p).
 - 수도권(61.2→60.5)은 연이어 악화(-0.7p), 지방(59.0→62.5)은 소폭 상승함(+3.5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76.7(71.7→76.7)로 소폭 개선되었으며(+5.0p), 전년 동월(68.6)보다 높았음(+8.1p). 금월에는 젊은 내국인기능공의 수급문제가 주로 제기됨.
 - 수도권(65.3→74.4)은 전월 대비 상승(+9.1p), 지방(74.4→77.5)도 소폭 상승함(+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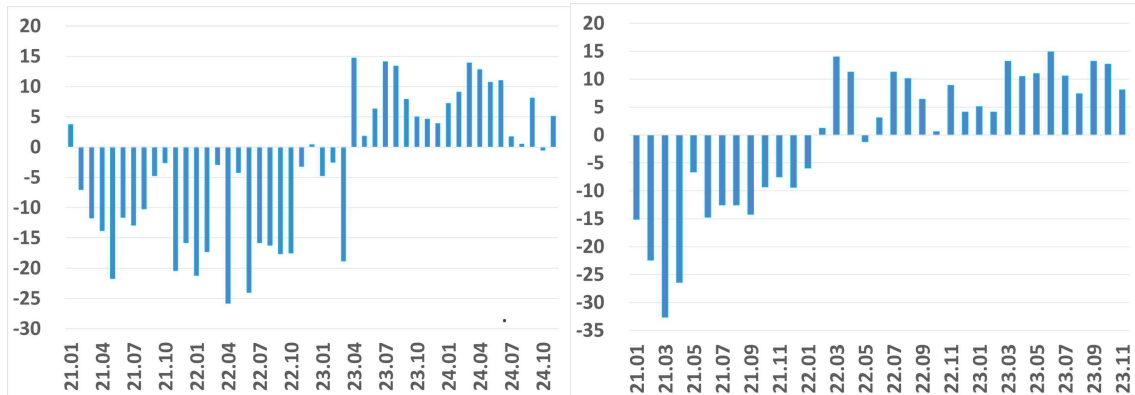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4년 11월 평가	62.0	56.9	60.5	62.5	55.6	74.1
	2024년 12월 전망	61.3	64.4	62.8	60.8	51.9	72.2
인력수급	2024년 11월 평가	76.7	68.6	74.4	77.5	63.0	96.3
	2024년 12월 전망	73.6	68.6	69.8	75.0	59.3	88.9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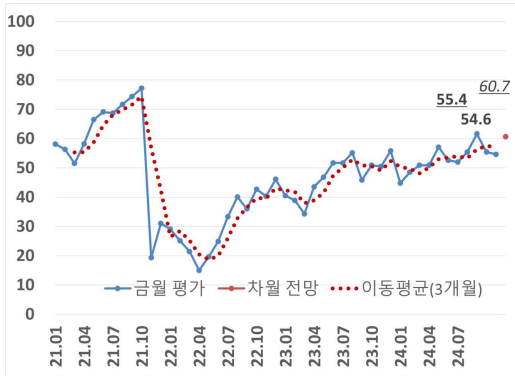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는 모두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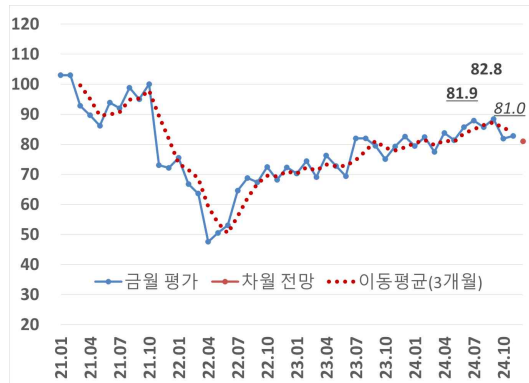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는 54.6(55.4→54.6)으로 전월과 유사했지만(-0.8p), 차월(60.7)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6.1p). 다만 전월의 차월 전망도 유사한 내용이었음.
 - 수도권(59.2→51.2)은 연이어 하락(-8.0p), 지방(53.8→55.8)은 전월 수준임(+2.0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도 82.8(81.9→82.8)로 전월의 수준이었고(+0.9p), 차월(81.0)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변동폭은 크지 않았음(-1.8p).
 - 수도권(75.5→79.1)은 소폭 개선(+3.6p), 지방(84.6→84.2)은 전월 수준임(-0.4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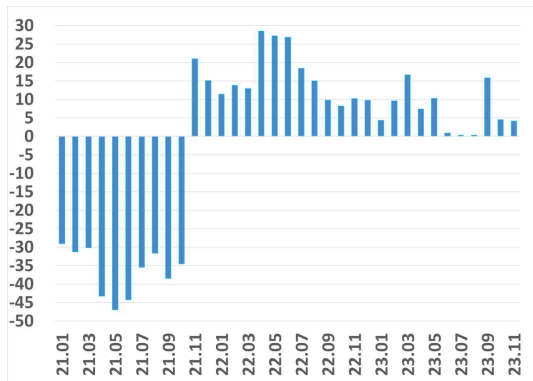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4년 11월 평가	54.6	50.5	51.2	55.8	51.9	66.7
	2024년 12월 전망	60.7	54.8	60.5	60.8	59.3	75.9
자재수급	2024년 11월 평가	82.8	79.3	79.1	84.2	66.7	96.3
	2024년 12월 전망	81.0	77.1	79.1	81.7	66.7	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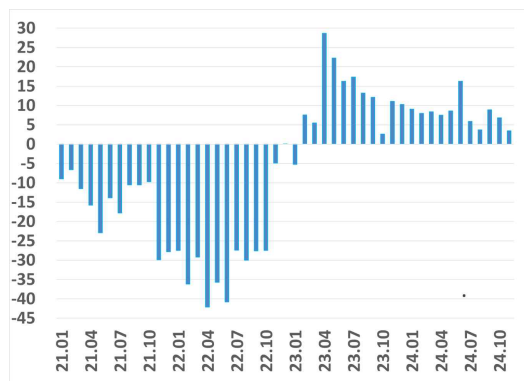
〈자재비 체감〉



〈자재수급〉



〈자재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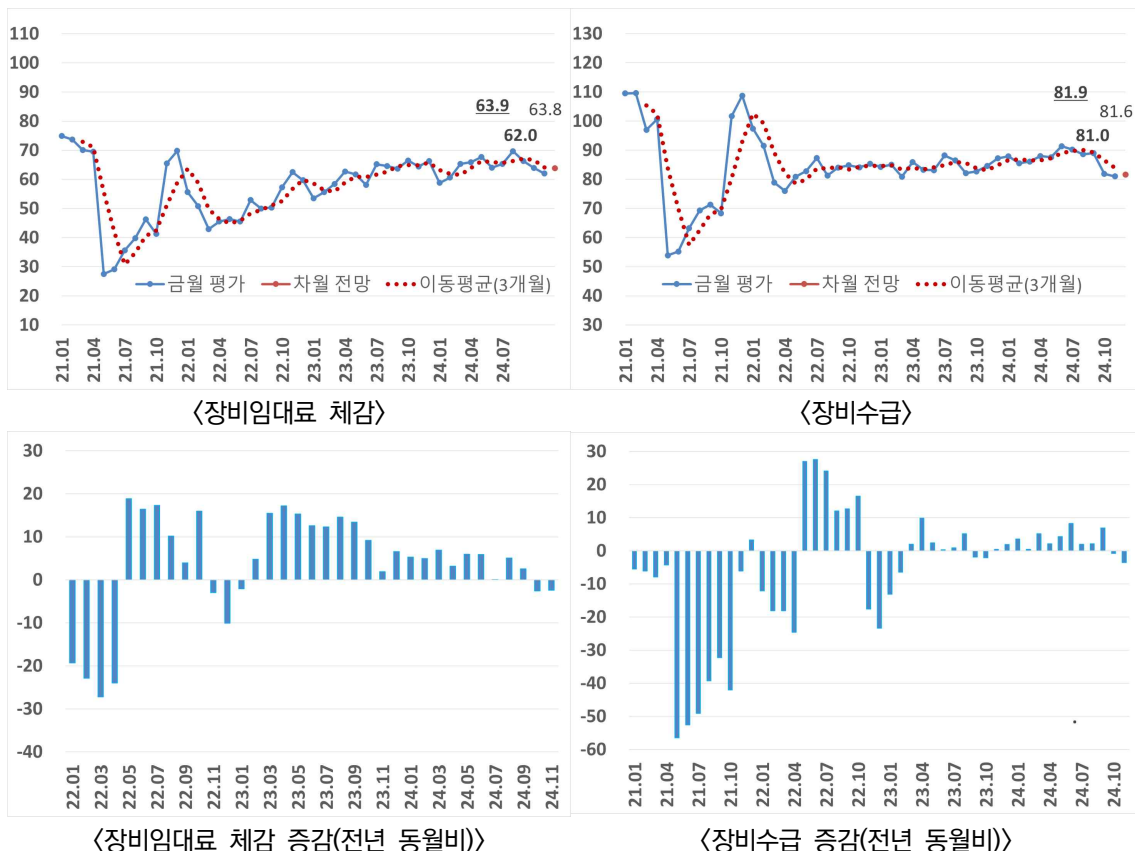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전월과 유사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62.0(63.9→62.0)으로 전월 대비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1.9p), 차월(63.8)의 전망치를 감안하면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1.8p).
 - 수도권(67.3→58.1)은 연이어 하락(-9.2p), 지방(62.4→63.3)은 전월 수준임(+0.9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1.0(81.9→81.0)으로 전월과의 차이는 미미했으며(-0.9p), 차월(81.6)에도 업황은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0.6p).
 - 수도권(77.6→76.7)은 전월과 유사했으며(-0.9p), 지방(83.8→82.5)은 전월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1.3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4년 11월 평가	62.0	64.4	58.1	63.3	51.9	74.1
	2024년 12월 전망	63.8	67.6	65.1	63.3	51.9	75.9
장비수급	2024년 11월 평가	81.0	84.6	76.7	82.5	63.0	98.1
	2024년 12월 전망	81.6	84.6	79.1	82.5	66.7	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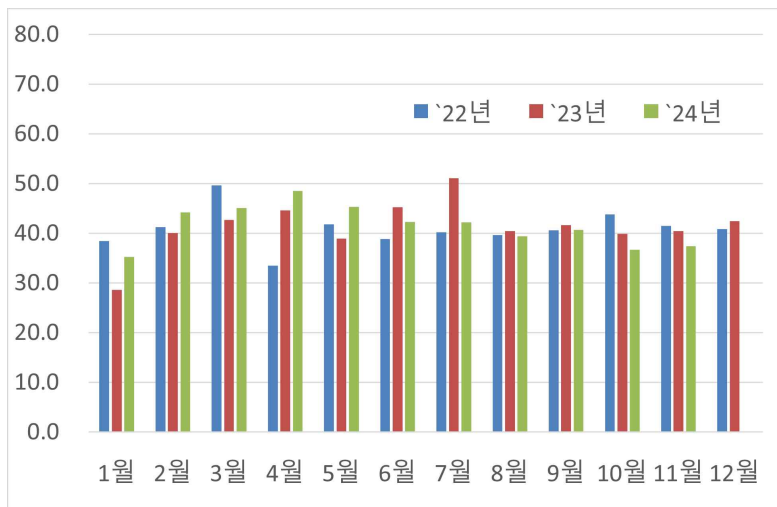


참고: 2024년 11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7.4	40.4	39.5	36.7	37.0	40.7	
	차월 전망	37.4	39.9	48.8	33.3	44.4	53.7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39.9	44.1	53.5	35.0	66.7	33.3
		차월 전망	34.4	33.5	46.5	30.0	51.9	42.6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39.3	38.8	60.5	31.7	70.4	33.3
		차월 전망	31.3	27.7	46.5	25.8	44.4	38.9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5.2	53.2	62.8	52.5	81.5	53.7
		차월 전망	49.7	49.5	48.8	50.0	51.9	55.6
	자금조달	금월 평가	55.8	50.5	69.8	50.8	85.2	59.3
		차월 전망	49.7	42.0	55.8	47.5	55.6	59.3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62.0	56.9	60.5	62.5	55.6	74.1
		차월 전망	61.3	64.4	62.8	60.8	51.9	72.2
	인력수급	금월 평가	76.7	68.6	74.4	77.5	63.0	96.3
		차월 전망	73.6	68.6	69.8	75.0	59.3	88.9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54.6	50.5	51.2	55.8	51.9	66.7
		차월 전망	60.7	54.8	60.5	60.8	59.3	75.9
	자재수급	금월 평가	82.8	79.3	79.1	84.2	66.7	96.3
		차월 전망	81.0	77.1	79.1	81.7	66.7	94.4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62.0	64.4	58.1	63.3	51.9	74.1
		차월 전망	63.8	67.6	65.1	63.3	51.9	75.9
	장비수급	금월 평가	81.0	84.6	76.7	82.5	63.0	98.1
		차월 전망	81.6	84.6	79.1	82.5	66.7	96.3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